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허 경 옥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창업자의 창업태도, 창업위험인지가
창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김 지 온

창업자의 창업태도, 창업위험인지가
창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허 경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김 지 온

인준서

김지온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4월

심사위원 유수현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양수진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강미영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이신애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허깅욱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개인은 창업을 통해 생계유지 수단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창업이 활성화될수록 산업 구조는 다양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재편되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 증대로 이어진다. 창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단지 창업 자체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창업 후 그 사업이 지속되어 개인과 국가가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정착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폐업률이 높고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탓에, 개인과 국가 모두 창업 초기 막대한 비용만을 소모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도전과 성취 동력을 고취하고 창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지속에 영향을 주는 창업자의 태도나 위험인지와 같은 심리적 요인들을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창업 교육 및 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위험인지, 창업지속의도와 창업자의 경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개인 특성이나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창업 상황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 태도나 위험인지 변수들로 구성된 창업지속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지속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조화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창업한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 28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위험인지, 창업지속의도간의 영향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변량 구조분석 수행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창업자 경력인 과거 직업과 창업 경험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모델의 등가성 확인 및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에 대한 태도의 하위변수인 창업대안, 창업매력, 창업실패에 대한 태도 모두 창업위험인지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위험인지 역시 창업지속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위험인지와의 관계에서 과거직업 전문직 여부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창업경험 여부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창업위험인지와 창업지속의도와의 관계에서는 두 변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부족한 역량과 경험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창업 초기에 국한하지 않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창업 이후 단계적으로 도래하는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사전에 경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창업자들 간 상호 경험과 역량을 교류하고, 공공 프로그램 및 제도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 네트워크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역시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창업 행정을 설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창업자의 상황과 경력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창업에 대한 양가감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영지표 이외 창업자의 고충과 불안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단계별로 제공함으로써 휴업이나 폐업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가 아닌 현재 창업 후 사업을 영위중인 창업자를 대

상으로 하여 보다 현실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전 경력 및 경험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창업자의 내재된 역량의 효과성을 발견하였다는 점, 그리고 창업과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미를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창업지속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8
1. 창업에 대한 태도	8
2. 창업위험인지	13
3. 창업지속의도	18
1) 창업지속의도의 개념	18
2) 창업지속의도의 이론적 모델	21
3) 창업지속의도의 영향 요인 연구	24
4. 창업자의 경력	27
1) 창업자 경력의 개념	27
2) 창업자 경력 연구	29
III. 연구방법	32
1. 연구목적 및 연구모형	32
2.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33
3. 측정변수	34
4. 분석방법 및 절차	34
IV. 연구결과 및 해석	36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6
2. 공변량 구조분석	36
1)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	36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39
3) 구조분석 결과	40
4) 조절효과 검증	42
① 과거직업 전문직 여부	42
② 창업경험 여부	44
V. 결론 및 제언	47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차례>

<표1> 창업에 대한 태도의 정의	10
<표2> 연구자별 위험인지 유형	16
<표3> 연구자별 창업지속의도 유사 개념 정의	19
<표4>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집중타당도 검증	38
<표5> 잠재변수들의 상관관계와 판별타당성 분석	39
<표6>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40
<표7> 구조모형 분석결과	41
<표8> 과거직업 전문직 여부에 따른 측정모형의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	43
<표9> 과거직업 전문직 여부에 따른 경로계수 차이검증	44
<표10> 창업경험 여부에 따른 측정모형의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45
<표11> 창업경험 여부에 따른 경로계수 차이검증	46

<그림 차례>

<그림1> 본 연구 모형33
<그림2> 창업지속의도 영향요인 구조분석 결과42

I. 서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의 가속화는 유례 없는 대규모 경제 문제와 고용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도 줄도산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고, 전 세대에 걸친 실업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순위의 사회문제가 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1)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크게 줄어 전년 대비 21.8만 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며, 고용률은 전년대비 0.8%p 하락, 실업률은 0.2%p 상승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창업은 침체되고 경직된 산업구조를 다양하고 혁신적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창업은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으로 인정받으면서 창업성공패키지, 혁신 바우처 사업 등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힘입어 외형적으로 빠르게 확장되어 왔다(남정민, 이환수, 201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만큼 폐업도 증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창업자를 위한 지원 자금이 매년 2조원 이상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4년차 이상의 도약기 기업 생존율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강한혁, 2019). 초기 창업지원정책으로 인해 창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장기간 유지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규호(2020)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창업률은 평균 15%, 폐업률은 13%이며, 2016년 기준 28만개의 사업체가 창업을 했고, 약 41만개가 폐업하였다. 기업의 생존률 관점에서 봤을 때도, 2018년 활동기업 중 1년 생존률은 63%, 5년 생존률은 31%에 불과하다. 초기 투자지원으로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이내 폐업으로 귀결된다면, 창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개인적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 손실 역시 재정적 비용만을 계산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의 통계청(2021) 자료에 의하면,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

자의 사업 준비기간은 1-3개월 미만이 49%이며, 초기 창업자의 22%는 임금 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신규 창업자의 경우 신규성, 소규모성, 관리 여건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존 기업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영할 수밖에 없는데(장수덕, 2003), 심지어 준비가 부족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창업으로 밀려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이들이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 직면할 어려움은 더욱 클 것임이 자명하다.

이렇듯 창업 후 지속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창업한 자들에 대한 관심 및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그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의도나 창업 교육 관련 효과성 연구가 이루어졌다(채연희, 2016; 장승환, 김창완, 2020; 하규수, 윤백중, 2011; 정연수, 조성의, 2013; 정헌배, 이현우, 이현경, 2019). 하지만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이라는 미래를 가정한 생각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생존과 관련하여 현장을 경험하는 입장이 아니므로 이상과 현실의 갭(gap)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예비창업자와 창업자가 직면하는 현실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창업, 위험에 대한 태도와 생각의 차이 역시 존재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응답을 동일선상에서 분석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창업을 이미 시작한 창업자 대상 연구들의 경우에도 창업지속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창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인 창업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그 사업에 대한 유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 창업 성공 요인과 그와 관련된 창업자 특성을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엄태영, 정대용, 2006; 정영순, 박미현, 2013; 남정민, 2014; 장혜진, 박우진, 2018; 장영혜, 장인성, 김판수, 2019; 김형민, 2021). 물론 이와 같은 연구들은 창업의 양적인 증대와 관련

하여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폐업 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는 그 의미를 확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창업 지속에 관한 연구가 현장에서 필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속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현실을 반영할 때 현재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의 지속, 유지와 관련된 창업연구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창업의 지속과 중단에 관하여 살펴볼 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결과는 재무적 지표로 드러나지만,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재무·환경적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상황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특히 창업기업이 도산, 폐업하는 상황에서는 창업자의 주관적 의사결정이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창업자들의 태도 및 경험 등에 관한 연구가 근본적인 연구로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창업지속의도에 관한 연구는 일관된 이론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주로 사회심리학의 태도·행동 모델의 이론적 틀을 응용하는 경우가 많다(하규수, 김도현, 김대호, 2010). 그 중 대표적인 것이 Fishbein,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태도는 계획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선행 요인으로서 연구된다. 즉,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지속의도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Krueger, Carsrud, 1993).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로서 창업하는 것이 좋은지와 나쁜지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평가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방향과 강도를 가지고 내적 일관성을 지니려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손국, 2018). 창업에 대한 태도는 경기침체 또는 실업률, 창업과 관련된 문화적 환경과 같은 환경적인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창업 경력 등 개인적인 능력과 심리적 태도에 의해 형성되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할 수도 있다(박배진, 2010).

기존 선행연구들을 보면,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 성공 및 실패와 관련된 태도, 창업 인식, 창업 기회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 기업가정신, 성공에 대한 기대감 등을 저하시켜 창업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하규수, 한정화, 2010; 하규수, 윤백중, 2011; 김수진, 한정화, 이상명, 2016). 이러한 실패에 대한 태도는 위험감수성향,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과 같은 개념들과 함께 연구되어 왔으며, 창업 관련 제도적 환경 및 국가별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도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김영대(2019)와 윤남수(2012)는 창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인식과 부정인식으로 나누어 이러한 인식들이 창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창업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 그리고 창업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며, 결국, 창업의 성과나 창업 지속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 차원에서 우수한 창업자를 시상하거나,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고안하는 것도 창업의 중요성과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Gnyawali, Fogel, 1994).

창업에 대한 태도는 취업에 대한 대안, 창업 기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창업자들은 대부분 창업 아이디어에 자신의 지식과 경력, 인맥 등을 종합하여 창업을 한다. 창업 기회는 창업을 시작하기 위한 호의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창업자는 창업을 통해 비용과 노력을 충분히 회수하고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질 때 창업 기회가 있다고 판단한다. 단지 취업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창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창업을 선택한다는 것 역시 창업

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듯 창업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정의 속에서 선행 또는 후행변수로서 연구되었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태도를 창업대안, 창업매력, 창업실패에 대한 태도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변수간의 구조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창업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위험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창업자는 창업 이후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 창업자가 인지하는 위험, 사업 실패 및 손실 부담, 스트레스 등은 사업 지속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서 취급되어야 한다(하규수, 김도현, 김대호, 2010). 창업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 위험요소 및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가적 에너지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인 부정편향성에 기인하여 결국에는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종국의 결정에까지 이를 수 있다. 창업 지속 의사결정에 있어서 창업에 대한 태도와 위험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한편,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이전 경력이다. 서정해(2006)은 창업자 생성에 중요한 배경적 요인으로 창업의 경험, 학력 및 지식, 가정환경이라고 주장하였다. 창업자 경력의 중요성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이상권(2012)의 연구를 보면, 이전 경험이 창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창업을 보다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금문혜(2015)의 연구에서도, 직장인의 창업자로서의 경력 전환의 동기와 과정에 대하여 질적 연구로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창업자들은 직장인으로서 경험했던 업무와 대인관계가 창업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다고 밝혔다.

기업가로서의 경험은 창업자가 사업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며, 적절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을 제공한다. 창업 경력은 자원의 분배 및 설계, 사업 기회의 발견, 위험의 예방과 해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김현정, 2021).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창업위험인지 그리고, 창업지속의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개인 특성이나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창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 태도, 위험인지 변수를 사용한 창업지속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창업이전 경력이나 창업경험에 대한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실행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모형을 개발하여 이들 간 구조관계를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미 창업하여 현재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여 현장에 적합한 현실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위험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창업위험인지는 창업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특히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여기는 정도, 창업 자체에 대한 매력의 정도, 창업 실패에 관한 태도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얻고자 한다.

둘째,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 관계에서 창업자의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창업자 경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여기서 창업자의 경력은 창업자가 업무 경력을 통해 학습하고 보유하게 된 경영 역량과, 창업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구분하기 위하여 과거직업의 전문직 여부와 창업경험 여부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본 연구는 기존에 밝혀진 유사한 연구 주제들을 종합함과 동시에 창업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창업초기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는 창업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의 창업 정책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어, 창업의 질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업에 대한 태도

일반적으로 태도는 대상에 대한 호의적·비호의적 반응 및 평가의 정도로 정의된다(Ajzen, 1991). 태도는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형성되며, 태도가 일단 형성되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또는 중립적인지 등과 같은 방향, 그리고 강도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정봉진, 2014). 또한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복수의 태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박나림, 2017).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경험이나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태도는 행동을 야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서 전통적으로 소비자심리와 행동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 태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에 대한 경험과 정보 등으로부터 얻는 어떠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식은 대상의 속성을 근거로 하여 신념(belief)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신념은 측정의 패러다임을 이끈다(강윤희, 2013). 태도 이론에 의하면,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는 그 행동이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믿는 신념과 그 결과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김수진, 한정화, 이상명, 2016).

이러한 태도 이론의 특성을 바탕으로 그 동안 다양한 창업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창업 연구에서 다루어진 태도 특성 변수는 대부분 개인에 내재된 고유의 심리와 관련되어 있다. 선행 연구자들은 창업자와 비창업자를 비교하여 창업자가 되는 개인은 어떠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이 창업자가 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창업자들의 성취욕구, 사업지향성이나 경력지향성, 통제

위치, 위험감수성 등을 비창업자와 비교하였을 때 집단 간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이후 창업 의도나 창업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들이다(유연호, 2009; 이호재, 2010; 강영욱, 2013; 강민정, 이새롬, 김병근, 2021).

하지만 개인의 고유 심리, 성격 등의 태도 변수는 창업자의 창업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가령, 성취욕구가 높은 개인은 창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취업을 통해 조직의 일원이 되어 성취를 추구할 수도 있다. 위험에 대한 성향에 있어서도 창업자가 비창업자에 비해 위험에 대한 기피정도가 낮고 선호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창업자가 반드시 위험선호형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특성이 창업을 실행하는데 영향을 주는 동기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러한 요인이 창업 관련 행동을 하는데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창업자는 창업 환경, 창업 관련 제도, 최근 경기 상황,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과의 비교, 실패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창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 연구에 있어서는 창업이라는 사건과 환경을 반영하는 태도 변수가 필요하며, 이러한 초점화된 태도 변수가 창업 의도나 창업 행동에 더 큰 설명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창업에 대한 태도를 한 마디로 개념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또는 창업을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과 포괄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창업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태도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창업에 대한 태도의 정의

연구자	정 의
이남희(2016)	창업을 실행에 옮겼을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이라 판단하는 견해
손국(2018)	창업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지 상태,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의 감정, 그리고 대상에 대한 구체적 탐색 또는 준비, 실행 등 행동적 요소의 확보
정대용, 김영수, 김지혜(2018)	창업 행동의 매력 또는 개인이 기업가가 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갖는 정도
석수(2020)	창업자가 되었을 때의 유리(불리)함 및 매력과 만족감의 정도

창업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창업의 시작과 진행, 그 이후의 성과에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사항이다. 일반적으로 태도라는 개념이 다양한 관점과 영역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창업에 대한 태도 역시 창업에 대한 감정(매력), 기회로서의 평가 그리고 실패 등 결과에 따른 반응과 같은 심리를 종합적으로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창업에 대한 태도를 통해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즉 신념, 가치와 같은 심리적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창업자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 지속여부 및 성과 등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창업에 대한 태도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과 선호, 매력 정도를 표현한다(하환호, 변충규, 2015). 창업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창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창업 조직을 조직화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창업

자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일 것이다. 이들은 똑같은 상황과 여건에서도 창업에서 기회를 발견하고자 하며, 창업을 성공시킬 방법을 찾아낸다. 정대용, 김영수, 김지혜(2018)는 개인의 주관적 매력도는 창업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망성 지각의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으며, Linan, Chen(2009)은 창업에 대한 태도가 개인이 가지는 창업에 대한 매력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창업 의도와 행동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Hayward, Forster, Sarasvathy, Fredrickson(2010) 역시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그 자체가 일시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고-행동 레퍼토리와 이로 인해 생성되는 자원이 기업의 유지에 있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창업과 취업 일자리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창업에 대한 태도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창업은 사업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생계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의 모든 창업 결정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창업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창업에 대한 태도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창업을 단지 취업의 대안으로서만 생각하고 비자발적으로 시작한 경우에는 창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것이고, 위험에 대한 인지 역시 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창업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실패에 대한 평가적 관점 역시 중요하다. 창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입해야 하며, 결과를 단선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창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부터 창업자는 매순간 사업과 관련된 위험에 직면하며, 실패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손실을 계산하게 된다. 제도적으로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창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라도 창업 행동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실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하규수, 윤백중, 2011). 따라서 창업자는 의사결정을 할 때 실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적 속성을 강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 창업 환경이 갖추어지고 창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하더라도 만약 사업에 실패할 경우, 그 실패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태도는 실패 시 부담해야 하는 낙인 효과의 주관적 평가 정도, 재기에 필요한 자원 조달 제도의 수준,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화적 배경 등에 영향을 받는다(김수현, 박성훈, 2013). 다시 말해 실패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은 단지 개인적 심리요인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동일한 문화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가치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실패 부담감을 크게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 장후석(2013)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창업 인식 조사를 보면, 창업 실패가 기업 파산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 파산 및 신용 불량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92.2%,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인식은 75.5%로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김영환(2021)은 해외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과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7개국 중 실패 두려움 지수는 49로 가장 높고(6개국 평균 32), 위험추구성향은 3.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6개국 평균 4.73). 그 동안 우리나라 창업생태계가 외형적으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평가(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에서는 OECD 34 회원국 가운데 22위에 그치는 등 창업의 내실을 쌓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창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한 태도는 실패를 인식하고 다루는 방향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창업자가 창업을 지속할지 그만둘지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창업위험인지

위험은 사건 발생의 확률과 결과에 관한 것이다(Adams, 1995). 위험을 정의하는 것은 분야에 따라 다양하지만, 생각과 믿음 그리고 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Oltedal, Moen, Klempe, Rundmo, 2004). 그동안 위험은 인지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에서 여러 관점으로, 요컨대 불확실성, 손실가능성, 변동성, 무지 등의 형태로 연구되었는데(손정현, 정홍주, 2005), Hofstede와 같이 위험에 대한 인식을 문화적 배경의 산물로서 연구한 학자도 있다(김완기, 2019).

위험은 전통적으로 손실 및 위해의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정홍주(2005)는 위험을 손실가능성, 즉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손해가 발생되거나 결과적으로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라고 하였고, Renn(2008) 역시 심리적 또는 미래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설명하였다. 물론 위험을 새로운 잠재적 수익과 관련된 기회로서 인식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Barbosa, Gerhardt, Kickul, 2007; Wood, Williams, 2014). 하지만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위험은 여전히 손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Giordano Martínez, Herrero Crespo, Fernández-Laviada, 2017), 위험의 방향을 전통적인 접근법, 즉 기업 활동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간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저마다 감수해야 하는 손실과 부담을 평가하여 계산하게 된다. 즉,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어떤 것이 나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위험이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주관적으로 인지한다. 이러한 영역을 위험인지 또는 지각된 위험이라 하며, 이는 객관적 확률로서의 위험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개인이 그 위험을 주관적으로 지각해야만 위험의 문제를 다룰 의미가 있다

고 볼 수 있다(Bruner, Goodman, 1947).

위험인지에 대한 정의 역시 다양하지만 개인의 고유 심리 특성인 위험 성향과는 구분되는, 대체로 손실에 관한 주관적 해석이라는 점에 있어서 궤를 같이한다. Conchar, Zinkhan, Peters, Olavarrieta(2004)는 위험인지를 각각의 선택 대안이 가져올 손실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로 정의하였고, 주재환(2016)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손실크기의 함수이자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이라는 개인의 주관적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Mitchell(1999) 역시 평균적인 개인의 경우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을 뿐이며, 설사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위험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대상의 객관적 위험이 아닌,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인지는 기업의 활동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간주되어 왔다(Elston, Audretch, 2011). 잠재적 손실 및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위험인지는 기업가정신을 둔화시키며,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ullins, Forlani, 2005; Monsen, Urbig, 2009). 우리가 창업 활동을 연구함에 있어 위험인지를 중요한 요소로 다루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Kuechle(2013)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예외 없이 불확실한 결과와 실패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자는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강영욱, 2013), 이러한 위험을 감내할지에 대한 결정은 다양한 위험 유형에 대한 창업자의 인식에 달려있다(김완기, 2019).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위험인지가 창업자적 행동에 선행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김완기, 2019). 창업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창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지라도 창업자 자신이 인지하는 위험의 크기가 큰 경우 창업 활동은 위축된다. Nabi, Linan(2013)은 창업자적 행동을 실행하고자 함에 있어 위기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평가가 내재

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Robinson, Marino(2015) 역시 창업 관련 상황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김대엽(2017)은 실증연구를 통해 위험인지가 낮을수록 창업기회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혀내었다. 그는 창업자마다 위험인지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실제 위험의 정도가 아닌 창업자가 인지하는 것으로서의 위험이 유의미한 영향 결과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위험인지는 목표와 자극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허경옥, 2003). 위험은 각기 구별될 수 있으며 하나의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이 다른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Jacoby, Kaplan, 1972). 목표와 상황에 따라 연구자들이 설정한 위험인지의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acoby, Kaplan(1972)의 경우 위험인지를 5가지 유형, 즉, 재정적 위험, 성과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이 유형들은 이후 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로 활용되었다. Valla(1982)는 산업별 구매 행동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관한 연구에서 기술적 위험, 재정적 위험, 배송 위험, 서비스 위험, 관계적 위험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Aqueveque(2006)을 포함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구매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위험인 재무적 위험, 성과적 위험, 사회적 위험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희승, 정완규(2019)의 경우 창업위험인지를 사업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설 및 전문성 위험, 사회위치적 위험으로 분류하여 이들이 창업의도 및 창업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사회위치적 위험이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완기(2019)는 위험인지를 4가지 유형(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 경력 위험 및 건강 위험)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제적 위험은 창업자적 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사회적 위험과 건강 위험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은 연구자별 위험인지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2> 연구자별 위험인지 유형

연구자	위험인지의 유형
Jacoby, Kaplan(1972)	재정적 위험, 성과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Valla(1982)	기술적 위험, 재정적 위험, 배송 위험, 서비스 위험, 관계적 위험
Schaper, Volery(2004)	재무적 위험, 경력 위험, 시간/건강 위험, 사회적 위험
Aqueveque(2006)	재무적 위험, 성과적 위험, 사회적 위험
유기석, 안희정(2006)	시간적 위험, 금전적 위험. 심리·신체적 유형, 사후관리
김완기(2019)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 경력 위험, 건강 위험
이희승, 정완규(2019)	사업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설 및 전문성 위험, 사회위치적 위험

이 중 전통적으로 가장 큰 위험의 요소로 여겨지는 것은 금전적 위험이다. 일반적으로 창업에서 창업 위험이라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로 금전적인 손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금전적 위험은 재무적 위

험, 경제적 위험과 같은 용어로 혼용되어, 경영·경제 분야의 위험인지 연구에서 주 관심 분야로 다룬다. 금전적 위험은 금전으로 표현되는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서 투자 및 유지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지의 정도, 그 외 창업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지불에 대한 위험 전반을 의미한다(김정룡, 2018). 창업은 이윤 창출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창업 초기 창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창업에 있어서의 위험은 금전적 위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창업자의 심리적, 사회위치적 위험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위험인지를 다른 방식으로 유형화한 연구들도 있다. Bettman(1972)은 위험인지 연구에서 위험은 내재 위험(inherent risk)과 처리 위험(handled risk)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내재 위험은 잠재된 위험으로, 제품군 등에 이미 존재하여 개인(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위험을 의미한다. 처리 위험은 개인의 선택 행동시 발생하는 것으로, 내재 위험에 작용한 정보와 위험 감소 과정이 포함된다. 창업의 경우, 두 가지 위험이 모두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창업 준비시기에는 내재 위험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하지만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는 내재 위험보다는 창업가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Nabi, Liman(2013)의 경우에는 위험을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다차원의 심리적 구조로 개념화하였는데, 기회로서의 위험과 위협으로서의 위험이다. 기회로서의 위험은 개인이 기회와 관련된 잠재적 이득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적 행동에 관여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후회를 경험할 수 있다는 차원의 의미다. 위협으로서의 위험은 잠재적 손실로서의 위험의 개념과 관련되며 이러한 손실의 범위와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의 이중 개념화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개인의 심리에 있어

동등하게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이들은 창업자의 위험인지를 창업자적 행동에 내재된 위기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고, 위험인지가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3. 창업지속의도

1) 창업지속의도의 개념

창업지속의도란, 창업 후 중단이나 처분 없이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창업자의 의도를 말한다. 창업지속의도는 개인적 차원으로는 창업자의 실패를 감소시키고(허경옥 2020), 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하며, 국가적으로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주요한 원동력이 된다. 창업연구에서 창업지속의도는 이후 창업지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해석된다.

창업지속의도는 어떤 하나의 명확한 개념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사업유지의도, 사업 의욕, 창업 지속성과 같은 용어로 혼용되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지속의도와 그 유사한 개념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주로 호의적 태도나 주관적 만족도에 기인한 지속 의도로서 개념화 한 경우가 많다. 김철성(2018)은 소상공인의 만족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태도 및 행동 변화, 구전, 호의적 태도, 만족도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고, 김정기(2019)은 현재의 업무나 업종을 지속하고자 하는 행동 의도로서 창업한 업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 그 의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허경옥(2020)의 연구에서는 창업유지의사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는데, 창업을 중단하거나 창업활동을 종료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로서, 창업기업을 성공적, 지속

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통해 창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창업지속의도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연구자별 창업지속의도 유사 개념 정의

연구자	정 의
김철성(2018)	만족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태도 및 행동 변화, 구전, 호의적 태도, 만족도 결과
김정기(2019)	현재 창업자의 직무나 업무에 대한 태도, 구전 행동, 만족 등의 결과로 현재의 업무나 업종을 지속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도
주영욱(2019)	현재 창업자들이 이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 기초하여 현재 업종을 지속하는 것
이금옥(2020)	창업자가 현재 업종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갖고 현재 업종을 지속하는 것
이희혁(2020)	창업자들이 창업 후 만족으로 인해 현재의 사업을 지속하려는 것
허경옥(2020)	창업을 중단하거나 창업활동을 종료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로서, 창업기업의 지속적 운영 여부를 통해 창업성과를 평가함
윤승용(2022)	현재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만족의 정도로써 향후 현재의 이 업종을 지속할 의지

창업은 창업자의 의도와 노력, 시간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연속적 과정이다. 창업자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이들은 예비창업자가 아닌 사업가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며, 이들의 태도나 위험에 대한 초점 역시 변모하게 된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창업 연구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온 주제는 창업의 지 또는 창업의도에 관한 것이었다. 가령, 예비창업자의 어떠한 심리적 특성이 창업의지를 형성하는지, 그들의 창업 동기는 무엇인지, 창업의지를 높이는 교육이나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지와 같은 것이다(임지현, 2010; 강영욱, 2013; 이정은, 2015; 하환호, 변충규, 2016; 김완기, 2019; 강민정, 이새롬, 김병근, 2021). 하지만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들은 창업을 하기 이전의 환경과 개인 특성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창업에 관한 의사결정 및 행동에 관한 연구로 확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창업의 목적이 단지 사업의 개시가 아님을 생각할 때, 창업자에게 있어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창업의 지속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지속에 있어 매우 낮은 생존률을 보인다. 2018년 활동기업의 경우 1년 생존률은 63%, 5년 생존률은 31%에 불과하였다. 심지어 창업보다 폐업이 더 높은 상황으로도 치닫고 있다(김규호, 2020).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지속되지 못하고 곧 폐업하게 되면 창업의 모든 과정이 실패로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창업의 실패는 단지 재무적 비용의 부담만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개인에게 있어 큰 책임과 상처를 남긴다. 폐업이 증가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산업구조가 편향적으로 형성되며,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창업의 성공 여부는 창업의 시작이 아니라 창업의 지속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창업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는 예비창업자로서 고려했던 위험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창업이 시작된 이후, 창업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불확실성 하에서 매순간 의사결정을 해야만 한다. 창업자의 태도나 위험에 대한 초점은 이들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즉, 창업 시작을 기점으로 창업자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예비창업자로서 가졌던 태도 등은 창업 이후 현실적인 차원에서 수정되고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실패나 위험에 관해서는 더욱 변화 가능성이 크다. 창업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다시 말해, 이들이 창업 전에 머릿속으로 예상했던 손실이 현실화 되는 경우 이들은 심리적으로 부정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창업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비창업자와 사업을 시작한 창업자의 태도나 위험인지는 분명히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반영한 창업지속의도 연구는 현업에 적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창업지속의도 관련 이론적 모델

창업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론은 사회심리학의 태도·행동 모델이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Fishbein,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이다.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의도와 행동에 관한 이론의 시작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신념, 감정 등에 대한 요소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속성임을 이해하고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이창수, 2016). 이에 Fishbein은 처음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로서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이하 TRA)을 개발하였다. TRA는 행동에 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이 선행변수가 되어 행동 의도(Behavior Intention)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한 이론이다. 그리고 그 중 태도는 주관적 규범에 비해 행동 의도를 형성하는데 더 큰 설명 변량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무송, 2011).

하지만 합리적 행위이론은 자발적인 행동인 경우에만 예측 가능하며, 개

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개인의 합리성에 의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여도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행동이 자발적 통제 하에 있으므로 의도만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가정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이후 완전한 자발적 통제가 결여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기 위한 시도로서,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라는 변인을 추가하여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하 TPB)이 개발되었다(Fishbein, Ajzen, 1975).

Ajzen(1985)이 제시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이란 외적인 요소인 물질적 자원, 시간 등과 내적인 요소인 자신감, 자기효능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관련된 자원들과 내적인 자기효능감 등이 높을수록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커지며, 이들로 인해 실제 행동이 촉진된다는 것이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이론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에 관한 이론으로 어떠한 요인의 의지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김병노, 2017).

Ajzen(1991)에 따르면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행동의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 간주된다(Kibler, Kautonen, Fink, 2014). 즉, 어떤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행동을 잘 수행한다는 것이다. 의도는 개인의 태도나 경험을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변수로서 설명된다.

TPB에서 다루는 태도와 의도, 행동간의 논리를 창업 연구에도 응용해 볼 수 있다. 창업은 계획된 행동 유형으로서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기 적합하다(Krueger, Reilly, Carsrud, 2000). 창업지속의도는 창업지속 의사결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창업지속 관련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가장 좋은 변수는 창업지속의도이며, 창업지속의도는 창업 태도

와 위협에 대한 인지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창업지속의도와 관련하여 위협인지를 소비자의사결정의 접근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하규수, 서상혁, 2011). 창업자는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비용과 노력, 시간 등의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이때부터 창업자는 매 순간 이득과 손실을 저울질하며,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은 그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때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면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위협이나 손실이 예상되면 행동 수행이 위축된다. 창업자도 위협을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종국적으로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유지하는 결정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창업지속의도 연구에 있어 창업자의 태도, 위협인지, 손실부담감, 스트레스 등은 의사결정에 선행하는 주요변수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여경은, 2016).

창업 지속에 관하여 영향을 주는 요인은 창업자의 탄력성 또는 회복력의 개념을 통해 살펴볼 수도 있다. 탄력성이란, 스트레스 상황에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극복하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윤승용, 2022). 즉, 이러한 탄력성의 개념을 창업에 적용하면, 창업가의 탄력성이란 부정적 환경, 요컨대 어려운 경제 환경이나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창업가의 지속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완기, 2019). 창업가의 현실은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도전적 과정의 연속이므로, 탄력성은 창업자의 중요한 개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업자의 정서적, 인지적 탄력성 또는 회복력에 따라 창업지속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Hayward, Forster, Sarasvathy, Fredrickson, 2010). 탄력성 연구는 주로 보호요인과 위협요인, 강화요인과 억제요인과 같이 명명되어 이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

으며,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을 나누어 분석하기도 하였다(Doney, 2013; 김완기, 2019). 탄력성을 높이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긍정적 태도, 자기효능감 등이 있으며, 탄력성을 낮추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부정적 태도, 위험지각, 스트레스 등이 있다. 창업지속의도와 탄력성의 개념을 비교할 때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에 있어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창업지속에 있어 창업가 탄력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3) 창업지속의도의 영향 요인 연구

지금까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된 것에 비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창업지속의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이종성, 2016; 주영옥, 2019). 또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각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용어 및 범위들이 혼용되고 있으며, 일관된 체계 역시 성립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의도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예측 변수라는 전제하에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다. 창업지속의도와 유사한 변수로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 지속과 관련하여 창업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들을 일부 선정하여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들이 있다. 허경옥(2020)의 경우, 창업자들의 두려움과 후회감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창업자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소규모 가족 창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두려움과 창업 후회, 창업지속의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30대 창업자가 가장 높은

지속의사를 보였으며, 창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창업지속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후회가 창업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창업 실패의 두려움은 창업 후회 수준을 높이며, 후회감이 높은 창업자일수록 창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하규수, 김도현, 김대호(2010)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태도와 위험인지가 사업유지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업에 대한 태도와 과거의 사업실패경험이 사업계속유지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실패경험이 없는 경우 사업에 대한 계속유지의사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집단의 배경적 특성에 따라 사업계속유지의사가 다르다는 점과, 태도와 위험과의 관계에 있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외에도 창업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적 차원의 요인 외에 창업 지원제도의 특성을 구분하여 각각의 유효성에 대하여도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한향원(2021)은 창업 후 5년 이내의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하게 된 동기, 창업의 준비, 창업 경험,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그리고 자금지원제도가 창업만족도를 매개로 사업계속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만족도와 자아실현동기, 멘토링을 한 경험이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이나 각종 자금지원제도 등은 창업초기 창업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업계속의도에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사업계속의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 의존하기보다 창업

자들의 내부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멘토링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영욱(2019)의 연구처럼 실제 이들이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는 창업자의 배경적 특성과 역량 특성, 재무적·비재무적 성과가 기업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자의 위험감수성 등의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기술적·전략적 역량과 경험, 창업자금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창업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종성(2016)은 그동안 많이 이루어진 만족도 연구를 확장하여, 주관적인 창업만족도와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는 경영성과가 창업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외식창업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이러한 요인들과 창업만족도 및 사업지속의도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창업자의 경영성과와 창업만족도가 사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창업 지속을 중단 및 실패의 관점으로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창업 중단, 실패 연구를 통해 창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한 창업자들을 조사하여 정보를 얻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실무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박준규, 2019). 하규수, 박배진(2021) 연구에 의하면, 사업중단의욕이 높을수록 사업의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사업지속을 위해서는 사업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며, 기업가의 실패비용을 제대로 파악하여야만 비로소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 외 창업 실패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나 경영전문성과 같은 창업자 개인의 특성, 전략, 자원, 경영관리, 외부환경 등의 요인을 다룬 연구들도 존재한다(권

기환, 최종인, 2015; 신중경, 하규수, 2013; 이장우, 이성훈, 2004; 장수덕, 2003).

4. 창업자의 경력

1) 창업자 경력의 개념

창업자는 창업 전반의 위험을 감수하며, 의사결정을 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특히 창업 초기에 창업자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를 도전하고 극복해가면서 생존하고 성장해 나간다. 이처럼 창업 초기 창업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창업자의 창업 이전의 경력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창업자 경력에 대한 접근은 창업자를 결정론적 관점에 의해 타고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계획 및 준비에 기반하여 성공을 만들어가는 존재로서 바라보는 관점으로(오재우, 이동형, 강진규, 2015), 창업 준비성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다.

기업가로서의 경험은 창업자가 사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Ucbasaran, Westhead, Wright, Flores, 2010). 다양한 경험들은 사업 중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제공한다(정성한, 김해룡, 2001). 창업자가 이전에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기업의 자원을 분배하고 설계하는 역량, 그리고 사업 기회를 발견하거나 사업에 직면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게 된다(김현정, 2021). 또한 창업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여 활용함으로써 적시에 자금을 조달하고,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Hayward, Forster, Sarasvathy, Fredrickson, 2010).

그간 많은 실증연구에서 창업 이전 기업가로서의 경험이 후속 창업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Delmar, Shane, 2006). Eesley, Roberts(2012)는 창업 성과에 있어 타고난 능력 그리고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는데, 그들은 기업가로서의 경험이 학습이라는 기제를 통해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창업자들은 이전의 창업 경험에서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금융 자원에 접근하거나 채용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Vaillant, Lafuente(2019) 역시 실제의 경험은 기업가적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부정적인 경험일지라도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 사업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가로서의 경험은 기업가의 의식과도 관계가 깊다. Ucbasaran, Westhead, Wright, Flores(2010)은 기업가들은 비기업가들보다 낙관적인 경향이 보다 더 크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과잉 낙관주의(over-optimism)라고 불리는 것이 경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과잉 낙관주의란, 다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건을 덜 경험하고, 긍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들은 과잉 낙관주의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도록 촉진하기도 하지만 폐업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령, 어떤 기업가들은 처음에 자신이 너무 낙관적이었음을 깨닫고 생각을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이후 창업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반해, 다른 경우의 기업가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편견이 축적되어 이후 사업에서 보다 낙관적인 견해를 보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경험은 의식을 형성하며, 이는 분명히 사업 지속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창업자 경력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최영근, 정승화, 임지선(2011)은 신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창업자의 인적자본 특

성 연구에서 창업자의 특성 변수로 관련 업종 경험 유무를 사용하였다. 오재우, 이동형, 강진규(2015)의 경우에는 배태조직 경력기간을, 박주연, 성창수(2016)의 연구에서는 창업 경험의 정도 및 현재 직종 및 산업 군과 유사한 관련 조직에서 일한 근무연수를 각각 변수로 사용하였다. 신승용, 권규현(2021)의 연구에서도 이전 근무 경험 및 이전 창업 경험을 창업자의 경력 특성 변수로 사용한 바 있다.

2) 창업자 경력 연구

창업자 경력은 초기 창업자에게 부족한 자원 및 역량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인적 자본이다(박주연, 성창수, 2016; 김현정, 2021). 창업자 경력은 위험에 대응하고, 주요 사안에 대처하는 역량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며, 이렇게 학습된 경험은 미래에 대한 전략을 수정할 수 있게 하고, 실패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그 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실증연구들을 통해서도 뒷받침되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빈봉식, 박정기(2002)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실무경험 및 창업경험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면서, 소상공인 창업에서 창업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관련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미영, 정해주(2012)의 연구에서는 기업가, 기술 및 네트워크 특성이 기술창업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관련 산업경험이 네트워크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기술능력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는 기술능력이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 이전의 경험 역시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냈다.

신승용, 권규현(2021)의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경력 특성이 기술 창업 스타트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창업자의 경력 특성 중 창업자의 이전 근무 경험이 스타트업의 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규수, 김도현, 김대호(2010)의 연구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업 계속 유지의사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사업에 대한 태도와 과거 사업실패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

김현정(2021)의 연구 역시 창업자가 지닌 기업가정신 및 창업경험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창업 경험은 기업 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창업 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박주연, 성창수(2016)는 창업자의 창업 경험이 사회적 네트워크와 성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창업자의 창업 경험과 유사업종 경력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업무성과의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창업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을수록 네트워크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창업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창업가 경력과 관련하여 일부 상반된 실증 연구도 존재한다. Cassar(2014)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경험이 실적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는 일반적인 기존의 결과들과는 달리, 스타트업 경험이 기업가적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인수, 이택구(2018) 역시 실패 이후 재창업을 하는 창업자의 성과 결정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창업 실패의 경험이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실패 후 재창업까지 기간이 평균 56개월이 소요되었는데, 그 때문에 실패 경험이 성과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실패 경험이 자산화 되어 이후 창업 기업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경험이 진부화 되기 전에 빨리 재창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일부 경험은 오히려 학습을 방해하여 실패를 야기한다는 연구도 있다. Gino, Pisano(2011)는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의 원인에 대하여 탐구하였는데, 그 결과,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그들이 사용한 전략 등에 대한 성찰이 적고 스스로 이유를 묻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성공에 관한 경험이 편견이나 매너리즘을 만들어 경험이 없는 상태보다 더 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 일종의 스스로를 과신하는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창업지속의도에 영향을 주는 창업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창업자의 태도, 창업위험인지와 창업지속의도의 영향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그림1>과 같이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위험인지, 창업지속의도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위험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창업위험인지는 창업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과거 직업의 전문직 여부 및 창업경험 여부는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위험인지, 창업지속의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과거직업의 전문직 여부는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위험인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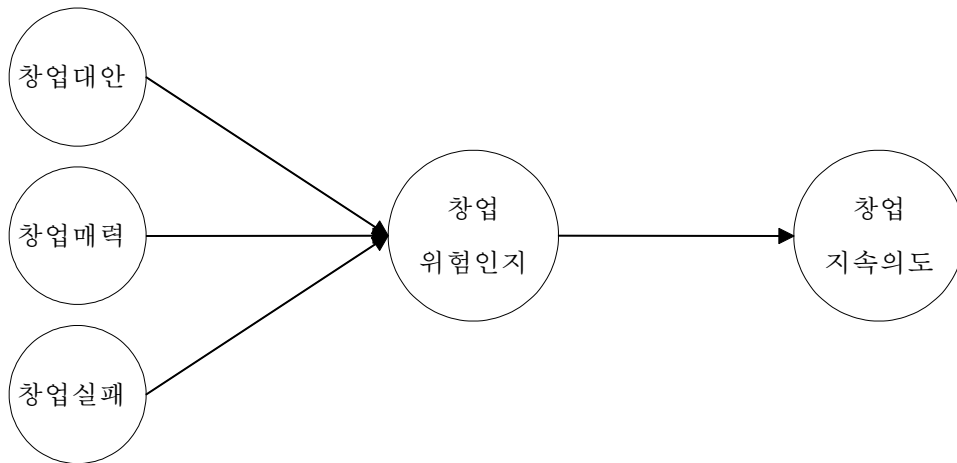
연구문제 2-2. 과거직업의 전문직 여부는 창업위험인지와 창업지속의도와 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3. 창업경험 여부는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위험인지와의 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4. 창업경험 여부는 창업위험인지와 창업지속의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창업에 대한 태도



<그림1> 본 연구 모형

2.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현재 창업한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질문이나 표현 등을 수정·보완하여 2015년 9월, 1개월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283부의 설문내용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위험인지, 창업지속의도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형태로 사용하였다.

창업에 대한 태도는 하위변수로 창업대안, 창업매력, 창업실패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내적 타당도는 검토 결과 적절한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창업대안 문항은 일자리 상황, 경기에 따라 창업을 선택할지 여부에 대하여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평균은 3.14, Cronbach's alpha 값은 .62로 나타났다. 창업매력 문항은 창업 추천의사 등 창업의 매력 정도에 대하여 질문한 것으로, 평균은 3.17, Cronbach's alpha 값은 .68로 나타났다. 창업실패 문항은 실패한 창업에 관한 평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은 2.30, Cronbach's alpha 값은 .85로 나타났다.

창업위험인지는 총 3개의 문항으로, 창업을 지속하거나 중단할 때 위험이나 그에 따른 손실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평균은 3.08이고 Cronbach's alpha 값은 .69로 나타나, 내적 타당도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창업지속의도는 총 3개의 문항으로 창업자가 창업을 지속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은 3.29이며, Cronbach's alpha 값은 .90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속의도 역시 내적타당도는 적합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 분석방법 및 절차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AMOS(Ver.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각 연구문제로 설정된 내용을 분석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위험인지, 창업지속의도간의 영향력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변량 구조분석(Structural Covariance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 실행을 위한 사전단계로 측정변수들을 유형화를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고, 측정척도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둘째,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창업자 경력인 과거 직업과 창업 경험의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과거직업의 전문직 여부, 창업경험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전 측정모델의 등가성 확인을 검토한 후,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총 283명으로 조사대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연령은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구간별로 나누었고, 그 중 20대가 약 44%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다수가 대졸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로는 기업을 운영 중이거나 기업 내 경영진인 경우가 약 34%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창업 분야를 조사하였는데, 유통·서비스가 약 47%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업, 제조·건설, 금융 등이 뒤를 이었다.

2. 공변량 구조분석

1)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델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차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추출된 측정항목들에 대하여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4>에 제시하였다.

우선 잠재변인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준을 살펴보면 요인부하량이 크고(>.50),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50 이상이고 잠재요인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가 .70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이학식, 임지훈, 2011).

<표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모델에서 요인부하량(β)은 절대값이 .50 이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 변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수치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경우 개념신뢰도가 .70보다 크고 평균분산추출값이 .5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값이 위에서 언급한 기준치 범위에 약간 미치지 못함이 발견되었으나, 모델의 적합도 지수, 표준화람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구조방정식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4>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집중타당도 검증

항목		비표준화 요인부하(B)	표준화 요인부하(β)	t값	SMC	평균분산 추출값 (AVE)	개념 신뢰도 (CR)	
창업 태도	창업 대안	대안1	1.03	.59	8.13***	.35	0.34	0.60
		대안2	1.11	.60	8.12***	.36		
		대안3	1.00	.58	-	.34		
	창업 매력	매력1	1.41	.83	15.66***	.69	0.52	0.68
		매력2	1.00	.62	-	.39		
	창업 실패	실패1	1.00	.77	19.20***	.60	0.77	0.91
		실패2	1.20	.91	19.97***	.82		
		실패3	1.00	.75	-	.56		
	창업 위험 인지	위험1	1.00	.45	-	.20	0.63	0.83
위험2		2.77	.94	8.84***	.89			
위험3		1.60	.61	19.20***	.37			
창업 지속 의도	지속1	1.00	.86	-	.74	0.68	0.86	
	지속2	1.04	.79	24.60***	.63			
	지속3	1.12	.93	31.33***	.86			

한편, 잠재변인들의 판별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분산추출값(AVE)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표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잠재변인들의 판별타당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표5> 잠재변수들의 상관관계와 판별타당성 분석

구성변수	$\sqrt{\text{AVE}}$	창업대안	창업매력	창업실패	창업 위험인지	창업 지속의도
창업대안	0.58	1				
창업매력	0.72	-.07	1			
창업실패	0.87	.03	-.01	1		
창업 위험인지	0.79	.03	-.05	-.02	1	
창업 지속의도	0.82	-.09	.55	-.04	-.08	1

참고: 평균분산추출값(AVE)이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커야함. 상단의 표에서는 비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AVE값의 제곱근 값을 제시하였음.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합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증분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원소간 평균잔차(RMR), 모집단 원소간 평균잔차(RMSEA)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김기옥, 2010). 구체적으로 기준을 살펴보면, CFI, GFI, AGFI, IFI의 값이 .90 이상이고 RMR, RMSEA값이 기준치 .08보다 작으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6>는 확인적 요인분석(CFA) 수행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각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FI=.95, GFI=.95, AGFI=.92, IFI=.96으로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RMR=.03이며, RMSEA=.05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적합도	X ² (Chi-square)	df	p	CFI	GFI	AGFI	IFI	RMR	RMSEA
측정 모형	212.07***	67	.000	.95	.95	.92	.96	.03	.05

*** p < .001

3) 구조분석 결과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위험인지가 창업자의 창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7>과 <그림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한편, 공변량 구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첫째, 창업대안과 창업매력, 창업실패는 창업위험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위험인지 수준이 높은 창업자일수록 창업지속의도는 부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생각할수록 창업위험인지 수준이 높았다. 이는 취업 여건이 좋지 않아 창업을 선택한 경우, 창업 동기에 있어 비자발적 측면이 다소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창업에 대한 위험인지 역시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창업에 대한 매력의 정도가 낮고, 창업 실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창업자일수록 창업위험인지 수준은 높았으며, 창업지속의도는 낮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창업지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자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위험의 정도를 낮추어야 하며,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안이 선행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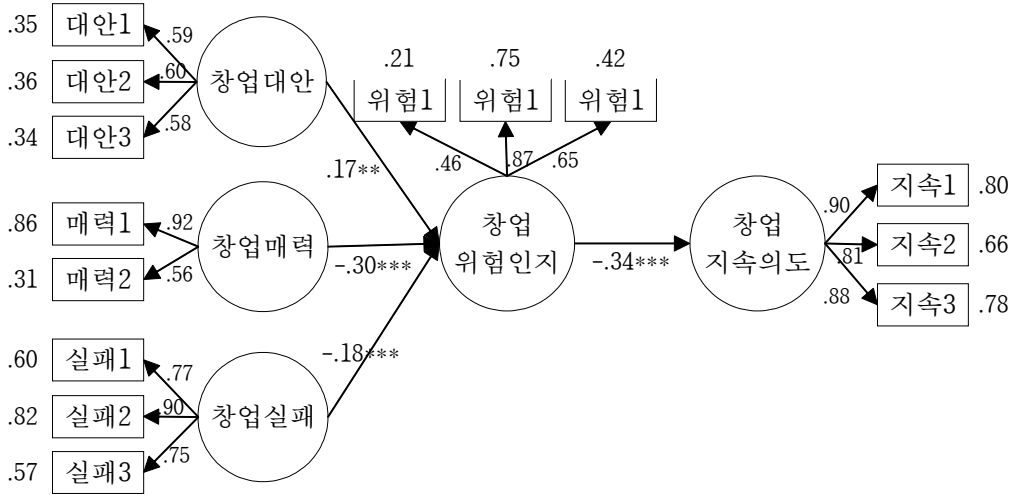
<표7>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t값
창업대안 → 창업위험인지	.09	.17	2.87**
창업매력 → 창업위험인지	-.16	-.30	-5.39***
창업실패 → 창업위험인지	-.10	-.18	-.71***
창업위험인지 → 창업지속의도	-1.09	-.34	-6.49***

GFI=.89, AGFI=.83, IFI=.82, CFI=.82, RMR=.15, RMSEA=.11, Chi-square(df)=687.26(70)***

** p < .01, *** p < .001

창업에 대한 태도



** p < .01, *** p < .001

<그림2> 창업지속의도 영향요인 구조분석 결과

4) 조절효과 검증

① 과거직업 전문직 여부

창업자의 과거직업이 전문직이었던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전문직 경력집단과 비전문직 경력집단의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 단계로 측정동일성의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두 집단의 측정항목 요인부하량 매트릭스에 대한 제약모형을 비제약모형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카이제곱값 증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측정의 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두 집단 간 측정도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8>과 같다.

<표8> 과거직업 전문직 여부에 따른 측정모델의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chi-square	df	RMSEA	AIC	CFI
비제약모델	304.09	134	.045	456.09	.95
제약모델	315.65	143	.044	449.65	.95
비제약모델- 제약모델	$\Delta \chi^2 = 11.56$	$\Delta df = 9$			

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위험인지와 창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하여 전문직 경력집단과 비전문직 경력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두 집단 간 대응되는 경로계수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를 모두 제약하지 않은 비제약 모델을 기준모델로 삼아, 대응되는 경로를 하나씩 제약한 모델을 구성하여 두 모델 간 카이제곱의 값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위험인지의 관계에서는 창업대안과 창업실패에 대한 태도가 창업위험인지에 미치는 영향이 전문직 경력집단과 비전문직 경력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창업매력과 창업위험인지와 관계에서는 전문직여부에 따른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창업위험인지와 창업지속의도와 관계에서는 전문직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한향원(2021)의 연구에서 창업 후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았던 경험이 많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창업자가 다양한 상황을 다루고 자원을 통제하는데 있어 이전 업무·경영 역량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사업유지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위의 결과는 창업에 대한 태도와 위험인지가 대체로 창업자의 이전 경력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 창업매력과 관련된 태도는 비교적 창업자의 기존 경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유 성향과 가깝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또는 경영과 관련한 이전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의 경우, 창업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보다는 창업과 관련된 실전적 경험을 채워주는 것이 위험인지를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구체적인 검증 자료는 <표9>에서 제시하였다.

<표9> 과거직업 전문직 여부에 따른 경로계수 차이검증

경로	전문직	비전문직	χ^2	df	$\Delta \chi^2$	Δ df	p
비제약모델(기준모델)	β	β	712.71	140			
창업대안 → 창업위험인지	.16	-.02	718.10	141	5.39	1	.020
창업매력 → 창업위험인지	-.23	-.98	712.96	141	.25	1	.613
창업실패 → 창업위험인지	-.19	-.00	723.41	141	10.70	1	.001
창업위험인지 → 창업지속의도	-.29	-.93	785.12	141	72.41	1	.000

② 창업경험 여부

조사대상자의 창업경험여부를 기준으로 창업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기 전 단계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측정항목의 요인부하량 매트릭스에 대한 제약모델을 비제약모델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0> 창업경험 여부에 따른 측정모델의 비제약 모델과 제약모델

	chi-square	df	RMSEA	AIC	CFI
비제약모델	285.72	134	.043	437.72	.95
제약모델	303.76	143	.042	437.76	.95
비 제약 모델 - 제약모델	$\Delta \chi^2 = 18.03$	$\Delta df = 9$			

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위험인지, 창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하여 과거에 창업경험이 있는 집단과 창업경험이 없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위험인지와의 관계에서는 과거 창업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위험인지가 창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과거 창업경험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창업경험을 가지고 다시 창업을 한 경우, 창업에 대한 태도는 이미 형성되어 있지만, 창업 지속과 관련된 위험의 영향 관계는 창업경험에 의해 학습되기 때문에 위험인지와 관련해서만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창업지속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경우, 창업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위험인지를 낮추기 위한 간접경험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는 <표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11> 창업경험여부에 따른 경로계수 차이검증

경로	β		χ^2	df	$\Delta \chi^2$	Δ df	p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비제약모델(기준모델)			754.98	140			
창업대안 → 창업위험인지	.19	.17	754.98	141	.00	1	.954
창업매력 → 창업위험인지	-.18	-.39	758.18	141	3.20	1	.073
창업실패 → 창업위험인지	-.29	-.11	756.66	141	1.68	1	.195
창업위험인지 → 창업지속의도	-.14	-.44	764.21	141	9.23	1	.002

V. 결론 및 제언

창업자는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고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창업자가 창업을 한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매순간 의사결정과 함께 오롯이 창업자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만 한다.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시장에서 생존하고, 사업을 지속시킬 것인지에 관해서다. 정부는 이러한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양적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창업기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폐업으로 귀결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며(이현호, 황보윤, 공창훈; 2017), 대부분 재기하지 못하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고 좌절하게 된다는 점이다. 김준호(2019)의 창업·폐업률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창업 후 3년 이내 56%의 사업자가 폐업하고, 5년 이내의 경우에는 70%, 10년 이내의 경우에는 무려 84%가 폐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창업 후 3년, 5년 내 도산·폐업하는 기업은 대부분 수익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생존의 기회마저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기업의 실패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단지 재무적 자원의 유무와 같은 가시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준섭(2017)은 폐업기업 연구에서, 창업기업이 지속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험의 부족과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상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창업자들의 역량과 역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자원이 중요하며, 그것이 창업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창업자들이 어떤 태도로 창업기업을 영위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창업지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의 과제이다. 창업과 폐업은 개인에 있어서는 생업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가적으로

는 경기침체의 해결, 실업난 해소, 나아가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이므로,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모두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창업지속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은 창업초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예비창업자에 비해 창업한 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자료를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 자체로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창업은 현실이며, 계산에 의해 결과가 산출되는 기계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창업자는 다양한 자원을 획득하고 활용해야만 하며,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창업자별 정보나 인식의 편차가 크고, 창업자의 여건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연구적으로도 어떤 일관된 이론 체계나 분석 틀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들의 창업 지속과 관련된 연구는 확대되어야 하며, 구체성이 요구된다. 창업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창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창업 실패와 위험을 다루는 심리적 방향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등의 효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자의 태도와 위험인지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차원의 영역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창업지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위험인지, 창업지속의도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

여 공변량 구조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위험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창업위험인지가 창업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이들 변수와 유사한 다양한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태도, 의도, 행동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창업에 초점을 맞춘 변수로서,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위험인지, 창업지속의도를 종합적으로 구조 분석한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가 창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은 이미 창업을 실행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연구 진행시 창업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할 수 있었으므로 기존 대부분의 창업 연구의 대상이 예비창업자임을 감안할 때 보다 실질적이며 심화된 버전의 연구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 관계에서 창업자의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창업자 경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제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에서 창업자 경력에 관한 변수들이 이후 창업 성과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검증한 바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경력에 대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즉, 창업자의 경력은 이후 창업 행동 더 나아가 성과적 측면에서 봤을 때, 창업의 지속과 성공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경험으로 인해 생성되는 일부 창업자의 심리적 인지편향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지속의 거시적 관점으로 볼 때, 창업자의 사업 운영과 위기 극복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 창업자의 경험과 내재적 역량이 창업자가 보유한 중요한 가용 자원으로서 창업지속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영향을 할 것으로 유추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창업자 경력의 하위변수로 과거직업 전문직 여부와 창업경험 여부

두 가지를 설정하였으며, 이들 각각의 조절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현재 창업 후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283부의 설문내용을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위험인지와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위험인지 역시 창업지속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우 창업위험인지가 높게 나타났고, 창업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실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에도 창업위험인지 수준이 높았다. 위험에 대한 인지는 위험 자체가 아닌 주관적 판단의 결과이며, 이러한 판단에 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여기서 창업자의 태도는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창업 대안과의 현실적인 비교, 창업 자체의 인식, 실패에 관한 태도 모두 영향을 미쳐 종합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업위험인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및 정책을 실시할 때, 태도를 구성하는 일부 측면만을 반영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여러 단면을 세심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창업위험인지가 높으면 창업지속의도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관계에 놓인다는 사실이 도출되었다. 이는 창업자의 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자의 위험에 대한 인지 수준 자체를 직접 낮추는 것과 동시에, 이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서 창업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모델에서 창업자 경력으로 과거직업의 전문직 여부 및 창업경험 여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델의 등가성 확인 및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과거직업 전문직 여부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위험인지의 관계에서 창업대안과 창업실패에 대한 태도가 창업위험인지에 미치는 영향이 전문직 경력집단과 비전문직 경력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창업에 대한 태도 중 창업매력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창업위험인지와 창업지속의도와 관계에서는 전문직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창업경험에 대한 조절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태도 모두 창업위험인지와 관계에서는 과거 창업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위험인지가 창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과거 창업경험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에 대한 태도에 비하여 창업위험인지와 관련된 영역에서 창업경험이 학습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창업자 경력이 창업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을 지지한다. 이를 통해 창업자의 업무·경영 역량과 창업경험이 창업에 의미 있는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적절한 지원 및 개입을 통해 창업위험인지 수준을 낮추고 창업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 제도 등 관련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이전 직업으로부터 얻은 역량 또는 창업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들의 경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쌓고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로 다양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시뮬레이션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은 다른 창

업에서의 성공 사례 요인을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고, 창업 후 단계별로 마주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 역시 사전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창업 교육은 대부분 창업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또는 지원을 위한 멘토링 등이 창업 초기에 국한시키지 말아야 하며, 보다 전략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비자발적 창업자의 경우, 이들이 가진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창업 실패의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의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태도, 위험인지와 같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공의 사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창업자들 간 네트워크 역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창업자들의 네트워크들이 창업초기에 활발히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며,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창업 관련 네트워크를 장기적 관점 하에서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공공 프로그램 및 제도 등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보 편차를 줄일 수 있으며, 상호 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나은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업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창업자의 태도를 구성하는 중점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적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자에게 있어 창업은 매력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이고, 기회이기도 하지만 책임에 대한 부담감 역시 매우 큰 도전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창업자별로 상이하다. 따라서 창업과 관련된 행정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에는 창업자의 상황과 경력에 따라 이들이 갖는 양가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창업 정책을

설계할 때에는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창업자들이 부정적인 신호에 많이 노출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창업에 대한 매력과 불안이 상충되는지와 같은 심리적 상황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매출 등 경영지표 이외 이들의 고충과 불안을 사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구체적 심리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휴업이나 폐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 업종별, 단계별 상황에 따라 창업자들의 심리적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차원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창업 후 사업을 영위중인 창업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자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종합적 구조분석과, 창업자 경력에 관한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창업자의 내재된 역량의 효과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제 창업지속의도가 창업지속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이에 영향을 주는 더 많은 개인적, 환경적 변수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의도와 행동 간 갭(gap)을 줄이고, 지속행동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세대별 연구 등으로 구체화되어 진행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계기로 창업지속 연구들이 확대되길 바라며, 창업 교육이나 제도 등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창업가들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민정, 이세롬, 김병근(2021). 예비창업가의 열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6(4), 71-84.
- 강영욱(2013).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실행의지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윤희(2013). 국가브랜드의 인식(perception), 매력성(appeal)과 소비자행동의도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한혁(2019). 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가 역량특성이 창업기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기환, 최종인(2015). 기술벤처의 실패요인 분석. 벤처창업연구, 10(4), 27-37.
- 권미영, 정해주(2012). 기업가, 기술 및 네트워크 특성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7(1), 7-18.
- 금문혜(2015). 직장인에서 창업자로의 경력전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호(2020). 소상공인의 창업·폐업률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욱(2010). 소비생활복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소비자학연구, 21(3), 167-194.
- 김대엽(2017). 창업가의 인지편향과 지각된 위험이 창업기회평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무송(2011). 계획행동이론에 기초한 한국대학생의 운동태도와 지각된 행동

- 통제력의 특성.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한정화, 이상명. (2016).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49-61.
- 김수현, 박성훈(2013). 창업환경, 지원정책, 창업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른 창업활동 분석 연구. 한국창업학회 Conferences, 157-171.
- 김영대(2019). 대학생들의 창업인식,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 의 구조적 관계분석.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2021). 해외 주요국 창업생태계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안.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21(8), 2967-2990.
- 김영희(2018).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창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창업학회 Conferences, 2018(3), 1-62.
- 김완기(2019). 대학생의 지각된 위험, 지각된 규범 및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인수, 이택구(2018). 신용문제에 따른 재창업기업 성과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13(2), 15-26.
- 김정룡(2018). 지각된 위험이 부정적 감정 및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2019).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창/폐업을 분석.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철성(2018). 상권분석시스템이 소상공인 창업성과, 사업지속의도,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2021).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5(4), 1-26.

- 김형민(2021). 정부지원사업이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창업만족, 그것의 매개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6(1), 1-22.
- 남정민(2014). 업종별 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업종별 창업자의 사업소득 및 창업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벤처창업연구, 9(5), 13-20.
- 남정민, 이환수(2019). 아시아 주요 국가별 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과 창업태도에 대한 연구: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비교 분석.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22(3), 51-63.
- 박나림(2017). 상황적 동기화와 태도·규범이 희귀난치병 어린이 기부 관련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배진(2010). 이득과 손실에 대한 지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실증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연, 성창수(2016). 창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87-96.
- 박준규(2019). 창업환경과 실패경험이 재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빈봉식, 박정기(2002).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소기업학회, 24(3), 135-158.
- 서경환(2019). 제조기업의 창업자 특성, 창업의지, 기술지향성 및 창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해(2006).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한중일 대학생의 의식. 경영교육연구, 43, 153-171.
- 석수, 오근엽, 김형준, 민태기(2020).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의 매개효과를 중

- 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3 (2020): 175-189.
- 손국(2018). 외식산업 예비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정현, 정홍주(2016). 위험지각의 차이 연구 -팬션관리자와 팬션소비자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연구, 27(2), 29-49.
- 신승용, 권규현(2021). 창업자의 경험 특성이 스타트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ICT 기술창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6(1), 185-205.
- 신중경, 하규수(2013). 창업실패 요인 분류 및 실패 패턴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1(5), 257-265.
- 엄태영, 정대용(2006).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의 특성이 매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2), 134-153.
- 여경은(2016). 사업유지의사와 사업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재우, 이동형, 강진규(2015). 창업준비성이 창업초기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10(4), 67-80.
- 유기석, 안희정(2006). 저가항공사와 기존항공사의 지각위험이 항공사 선택 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경영연구, 28. 41-63.
- 유연호(2009).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 윤승용(2022). 외식업 소상공인이 인지한 환경 불확실성이 회복탄력성과 혁신 행동,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옥(2020). 외식창업자의 기능적 역량과 심리적 역량이 경영성과 및 사업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극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남희(2016). 경력단절 여성 특성과 여성 네트워크가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권(2012). 조리 종사자의 경력 및 교육자세가 외식창업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운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장우, 이성훈(2004). 벤처기업 실패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인사조직연구, 12(특호), 229-274.
- 이정은(2015). 개인발명가의 창업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성(2016). 외식창업자 특성이 경영성과와 창업만족도,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섭(2017). 중소기업의 폐업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수(2016). 건설기술자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학식, 임지훈(2011).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18.0/19.0. 서울: 집현재.
- 이현호, 황보윤, 공창훈(2017). 스타트업의 초기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2(1), 1-13.
- 이호재(2010). 취업준비생과 청년창업경영자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승, 정완규(2019). 피아노 학원(교습소)의 창업 위험인식이 창업의도 및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20(2), 195-215.

- 이희혁(2020). 소규모 외식창업자의 특성, 성공요인, 만족도 및 사업지속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명재, 임미라(2010). 관광축제 지각된 서비스 품질, 태도, 행동의도간의 관계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6), 460-470.
- 임지현(2010).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덕(2003). 성공한 벤처기업과 실패한 벤처기업의 특성차이.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6(2), 101-125.
- 장승환, 김창완(2020). 대학 정규 창업강좌 참여학생의 창업인식과 창업의도 매트릭스기반 수준별 변화 패턴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5(2), 1-22.
- 장영혜, 장인성, 김판수(2019).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환경인식, 그리고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정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5), 115-125.
- 장혜진, 박우진(2018). 창업자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 Conferences, 2018(1), 20-43.
- 장후석(2013).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 사무직, 연봉 2800만원, 정년 62세인 일자리. VIP Report, 83, 1-21.
- 정대용, 김영수, 김지혜(2018). 주관적 규범이 창업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Linan and Chen(2009)'s EIM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3(1), 183-204.
- 정봉진(2014).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한, 김해룡(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4(2), 3-29.
- 정연수, 조성의(2013). 대학생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창업교육에의

- 시사점. 한국창업학회지, 8(1), 57-73.
- 정영순, 박미현(2013). 50세 이후 창업한 중고령자의 창업 지속가능성 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9(1), 227-254.
- 정헌배, 이현우, 이현경(2019). 대학생 창업교육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관계에 관한 연구: 무형식학습 경험의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4(6), 138-159.
- 정홍주, 한국의 위험과 보험, 문영사, (2005)
- 주영욱(2019). 창업자의 창업성공요인이 기업지속가능성과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재환(2016). 자동차보험 서비스구매에서 소비자의 위험인지, 가치인식, 관여 및 만족이 관계질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1). 2020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진흥공단.
- 채연희(2016).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근, 정승화, 임지선(2011). 신기술 기반 벤처기업에서 창업자의 인적 자본 특성과 기업공개 소요 기간과의 관계에서 벤처캐피탈 투자의 매개효과.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5(3), 87-114.
- 최진숙, 이남희, 황금주(2019). 경력단절여성의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4) 113-132.
- 통계청(2021).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 하규수, 김도현, 김대호(2010).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지가 창업 및 사업유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10(08), 1-28.
- 하규수, 박배진(2021). 중소기업 기업가들의 사업실패비용과 사업의욕. 벤처창업연구, 16(1), 87-97.

- 하규수, 서상혁(2011). 사업위험에 대한 인지가 창업의욕 및 사업유지의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14(S), 1285-1311.
- 하규수, 윤백중(2011).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8), 3406-3414.
- 하규수, 한정화(2010). 여성의 사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의욕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1-36.
- 하환호, 변충규(2015). 긍정적 인지편향이 창업시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4), 145-153.
- 한향원(2021). 초기창업자의 창업요인이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경옥(2003). 소비자 위험인지가 소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이동전화 사용을 중심으로. 마케팅과학연구, 2003, 165-182.
- 허경옥(2020). 소규모 가족 창업자의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가 창업 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24(2).
- Adams, J.(1995). Risk. London: UCL Press.
- Ajzen, I.(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Action control (pp. 11-39). Springer, Berlin, Heidelberg.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queveque, C.(2006). Extrinsic cues and perceived risk: the influence of consumption situation.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 Barbosa, S. D., Gerhardt, M. W., Kickul, J. R.(2007). The role of cognitive style and risk preference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13(4), 86-104.
- Bernard, M. J., Barbosa, S. D.(2016). Resilience and entrepreneurship: A dynamic and biographical approach to the entrepreneurial act. *Management*, 19(2), 89-123.
- Bettman, J. R.(1972). Perceived risk: A measurement methodology and preliminary findings. *ACR Special Volumes*.
- Bruner, J. S., Goodman, C. C.(1947). Value and need as organizing factors in perception.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2(1), 33.
- Cassar, G.(2014). Industry and startup experience on entrepreneur forecast performance in new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9(1), 137-151.
- Conchar, M. P., Zinkhan, G. M., Peters, C., Olavarrieta, S.(2004). An integrated framework for the conceptualization of consumers' perceived-risk process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2(4), 418-436.
- Delmar, F., Shane, S.(2006). Does experience matter? The effect of founding team experience on the survival and sales of newly founded ventures. *Strategic Organization*, 4(3), 215-247.
- Doney, P. A.(2013), "Fostering Resilience: A Necessary Skill for Teacher Retention" , *Journal of Science Teacher Education*, 24(4), 645-664.
- Eesley, C. E., Roberts, E. B.(2012). Are you experienced or are you talented?: When does innate talent versus experience explai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6(3), 207-219.

- Elston, J. A., Audretsch, D. B.(2011). Financing the entrepreneurial decision: an empirical approach using experimental data on risk attitudes. *Small business economics*, 36(2), 209-222.
- Fishbein, M.,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 Wesley.
- Gino, F., & Pisano, G. P. (2011). Why leaders don' t learn from success. *Harvard business review*, 89(4), 68-74.
- Giordano Martínez, K. R., Herrero Crespo, A., Fernández-Laviada, A.(2017). Influence of perceived risk on entrepreneurial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multidimensional approach for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Risk Research*, 20(2), 218-236.
- Gnyawali, D. R., Fogel, D. S.(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43-62.
- Hayward, M. L., Forster, W. R., Sarasvathy, S. D., & Fredrickson, B. L.(2010). Beyond hubris: How highly confident entrepreneurs rebound to venture agai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6), 569-578.
- Jacoby, J., Kaplan, L. B.(1972). The components of perceived risk. *ACR special volumes*.
- Kibler, E., Kautonen, T., Fink, M.(2014). Regional social legitimacy of entrepreneurship: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start-up behaviour. *Regional Studies*, 48(6), 995-1015.
- Krueger, N. F., Carsrud, A. L.(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5(4), 315-330.
- Krueger Jr, N. F., Reilly, M. D.,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Kuechle, G.(2013). The determinants of effective entrepreneurial behaviour: An evolutionary game theory critiqu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30(2), 507.
- Mitchell, V. W.(1999). Consumer perceived risk: conceptualisations and model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 Monsen, E., Urbig, D.(2009). Perceptions of efficacy, control, and risk: A theory of mixed control. In *Understanding the entrepreneurial mind* (pp. 259-281). Springer, New York, NY.
- Mullins, J. W., Forlani, D.(2005). Missing the boat or sinking the boat: A study of new venture decision making.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 47-69.
- Liñán, F., Chen, Y. W.(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Nabi, G., Liñán, F.(2013). Considering business start-up in recession time: The role of risk perception and economic context in shap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 Oltedal, S., Moen, B. E., Klempe, H., Rundmo, T.(2004). Explaining risk perception: An evaluation of cultural theory. *Rotunde*, 85, 1-33.

- Renn, O.(2017). Risk governance: coping with uncertainty in a complex world. Routledge.
- Robinson, A. T., Marino, L. D.(2015). Overconfidence and risk perceptions: do they really matter for venture creation decision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1(1), 149-168.
- Schaper, A., Volery, M. V.(2004). Tracking student entrepreneurial potentials. *Problems and Perspective in Management*, 6(4), 45-53.
- Ucbasaran, D., Westhead, P., Wright, M., Flores, M.(2010). The natur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business failure and comparative optimis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6), 541-555.
- Vaillant, Y., Lafuente, E.(2019).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the innovativeness of serial entrepreneurs. *Management Decision*.
- Valla, J. P.(1982, December). The concept of risk in industrial buying behaviour. In *Workshop on Organizational Buying Behavior*. Brussels, Belgium: European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Management.
- Wood, M. S., Williams, D. W.(2014). Opportunity evaluation as rule-based decision making.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51(4), 573-602.

ABSTRACT

The Effect of Founder's Entrepreneurial Attitude and Entrepreneurial Risk Perception on Intention to Continue the Business

Kim, Jeeon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an's University

Starting business gives an individual an opportunity to extend his or her own realm of making a living as well as to creatively develop one's own capability. The more starting business get encouraged, the more diversified and futuristic the industrial structure grows to be, which will result in strengthening nationwide competitiveness. The fact that the momentum for starting business is gaining upper hand means not just quantitative expansion of business activities but also that virtuous economic cycle nourishing both individuals and the state are in place as a result of such businesses keeping operating after start-ups. Despite that, the country still sees closure rate still staying high, inevitably causing both individuals and the state to burden huge cost at initial stage of business for repeated

cycle of starting business and then closure. Given this, the study aims to suggest ways of encouraging startups to be up for challenges and business accomplishments and feeding the vigor for startups. Specifically, the study aims to suggest direction of policies aimed at effectively developing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system by analyzing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startups' attitude or recognition of risks all of which are likely to influence ongoing operation of startups.

The study involved startups already creating and operating business to analyze startups' attitude, their recognition of risks, the intention of sustaining business and their careers. While individual's traits or the will to create business which importantly influence creation of business have intensely been under investigation, it is hard to find any significant study on comprehensive analysis of individuals' attitude toward starting business, impact of their recognition of risks on the intention of continuing business and their career prior to starting business. Thus, the study focuses on developing research model and substantiating such model by systematizing factors that influence intention of continuing startups.

The study involved 238 startups currently under operation. First, the study performed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o analyze how attitude toward starting business, recognition of risks and intention of continuing business interplay. In addition, the study conduc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rior to performing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Second, the study introduced equivalence ascertainment and multiple group analysis to check how business founder's past career and startup experience interplay by looking into relationship among these

variables.

The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has been revealed that attitude toward starting business has significant effect on the recognition of the risks and that the recognition of startup risks has direct impact on the intention of continuing business. Secondly, it has turned out that while significant difference exists between professional-career group and non-professional-career group in terms of attitude toward starting business and the recognition of startup risks, no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reported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startup experience. However, as far as recognition of startup risks and intention of continuing business are concerned, such two variables were found to show obvious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above study suggest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grams that can fill the founders' insufficient competencies and experiences in the mid- to long-term.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experience and respond to difficulties in businesses that arrive step by step after starting a business. At the same time, it will be necessary to more practically operate a network of founders in order to exchange mutual experiences and competencies among founders and to increase access to public programs and institutions.

Second, in designing a start-up administration at the national level, first of all, an understanding of both price feelings for start-ups that are form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founder's situation and career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prevent closure in advance by developing specific indicators that can diagnose the grievances and anxiety

of founders other than management indicators.

The study involved startups already starting business and currently under operation rather than would-be startups to produce down-to-earth suggestions. In addition, it has a discriminatory meaning in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founder's inherent competencies was fou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s on previous careers and experiences, and that it was analyzed using more practical and concrete variables related to start-ups. Based on this, it is expected that practical research on various factors to strengthen the sustainability of start-ups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